

교회소식

- 대심방 중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장로장립 감사예배 및 임직식:
 - 임직자: 김동수, 서영수
 - 일시: 2019년 3월31일(주) 저녁 6시 뉴욕세광교회 본당
- 교육부 광고
 - Talent Market: 4월28일 12시30분 유년부실
 - 진행을 도와주실 Volunteer(3명)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사람들

3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석동훈 집사 (시 126)
이번 주 친교: 구자금 목사, 신미라 권사
다음 주 친교: 황인선 사모, 김행란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3월개강)	여성반	수 10am / 소회의실
	가족반	목 8pm / 대회의실
	남성반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교역자

담임목사: 이민영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교육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 Leader
 Word of God----- **Luke 19:1-10** ----- Pastor Kim
 Sermon----- **“The Guest of A Sinner”**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Together
 Closing Praise-----“Faithful Father” ----- Together
 *Benediction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91장(통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다함께
 Hymn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대표기도 ----- 시편 32 ----- 나경수 집사
 Prayer Psalm 32
 찬양 ----- “시편 150편”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시편 50 ----- 인도자
 Word of God Psalm 50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설교 -----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455장(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다함께
 Hymn We Shall be Like Him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와..., 나는.... 이 두 문장은 성경과 신앙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론과 인간론이라는 교리의 두 기둥일 뿐 아니라,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담겨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그 진리가 마지막 절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 “나는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와 선하심이 따른다는 말은 참으로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따른다”는 동사는 상당히 과격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중에 적군을 추격하거나, 원수를 끝까지 쫓아가 복수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와 선하심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과격하게 쫓아온다는 표현입니다. 뒤에서 조용히 따르며 우리가 원할 때, 자격이 있을 때, 필요할 때만 은혜를 베풀다가, 필요없으면 조용히 사라지는 선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와 그의 선하심대로 은혜를 베풀고야 마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다투는 주께서 자기 생각과 행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셔서, 어디를 가더라도 주께서 함께 계시므로 피하거나 숨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시 139).

든든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말기는 믿음이 없이는, 목자의 음성 듣고 전적으로 신뢰하여 따르는 양이 아니라면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아흔아홉 마리를 우리에게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산과 들을 쫓아다니는 목자의 이야기는 따라잡힌 양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목자에게 발견되어 그 품에 안긴 양에게는 이 목자만큼 선하고 은혜로운 목자는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따라잡힌 양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따라잡혔습니다.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믿고 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께서 우리를 따라잡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목자처럼 돌이키시겠다는 약속처럼(겔 34:11-12),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더럽혀진 자기 이름을 스스로 회복하셨습니다(겔 36:22).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선한 목자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드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따라잡으셨기에 그가 계신 곳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 예수님이 인도하신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상에 앉아 떡과 잔을 나누신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고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다른 데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음부와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를 따라오셨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처음 들었으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십시오. 주님께 따라잡힌 성도들은 목자되신 주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우리 삶을 맡깁시다. 그 품에 안깁시다. 각기 제 길로 가면서 뒤에서 필요한 때만 도우시라고, 양으로서 목자를 주관하려 하지 맙시다.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기름 바르시며 사랑하십니다. 잔이 넘치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영원히 함께 거할 아버지가 되십니다.

Memo